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 날짜 : 2025년 6월 19일(목) / • 문의 :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010-9946-9656)
/ 조혜연 대책위 언론팀(010-3260-1942)

[보도자료]

정부 협의체 구성에 따른 故김충현 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6.19.(목) 13시, 용산 대통령실 앞 인도

○ 기자회견 취지

1.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이후, 우리 조합원들과 대책위의 끈질긴 투쟁은 결국 정부의 협의체 구성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결코 선의로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 거리에서 싸우고, 교섭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조합원들의 승리입니다.
2.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겠다’ 고 했지만, 진짜 핵심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 보장 없이 협의체는 껌데기에 불과합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의 관문인 기재부가 빠진 협의체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3. 우리는 이번 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정규직 전환, 안전한 일터, 정의로운 전환을 쟁취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만들어낸 성과 위에서, 언제든지 다시 투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만과 회피가 이어진다면, 우리는 노숙농성과 파업으로 다시 싸울 것입니다. 고 김충현 동지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워 이길 것입니다. 기사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대책위 조성에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순서	내용
입장발표	대책위 집행위원장_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규탄발언1	대책위 공동대표_이백운 노동당 대표
규탄발언2	대책위 공동대표_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본부장
규탄발언3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
투쟁발언	대책위 공동대표_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입장발표] 대책위 집행위원장_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고 김충현을 보내고, 고 김충현의 동료들이 투쟁의 앞에 섭니다. 고 김충현의 죽음에 슬퍼하고 분노해 주신 많은 시민들과 고 김충현의 동료들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대책을 논의하자는 정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고 김충현의 동료들,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장례식장이 아니라 거리에서, 고인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들고 투쟁을 벌입니다.

정부 협의체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재부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기재부가 빠진 협의체는 발전사들의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지난 서부발전 한전KPS와의 교섭에서 사측은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발전소 하청구조에 대한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기재부 승인을 가져오라는 오만방자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협의체에서 보란 듯이 기재부가 빠졌습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가 기재부가 아님을, 정부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안전문제와 고용문제 역시 주요한 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기존 발전산업의 원하청 구조와 안전문제 해결책을 완벽하게 내놓는다고 한들, 발전소가 사라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새롭게 창출될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발전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 에너지를 강조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윤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윤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안전문제가 핵심적인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공공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고,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안전 협의체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협의체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이미 대안으로 만들어놓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이 얼마나 이행되어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풀어낼지를 논의하는 게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1호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구조를 없애는 거였습니다. 흔히 정규직 화라고 하는데 고 김충현의 핸드폰에서 드러난 것처럼 하청 노동자들은 이미 원청의 일상적인 지시를 받으며 원청 직원처럼 일했습니다. 이미 원청의 지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원청직원처럼 일하는 사람들을 원청이 책임지고 불법적인 계약관계를 바로 잡으면 될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화를 하겠다고 왔습니다. 정부가 대화가 아니라 일방통행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 투쟁하려 올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빛을 만드는 노동자 고 김충현이 어두운 노동현장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 빛을 따라 걸어가는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책위를 응원하는 또 다른 빛이 되어주십시오.

[투쟁계획] 대책위 공동대표_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흔히들 장례가 끝나면 투쟁도 끝난다고 합니다. 고인을 가슴에 묻은 노동자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투쟁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투쟁을 끝내는 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뿐입니다.

정부와는 대화와 투쟁을,
서부발전과 한전KPS를 상대로는 강력한 처벌과 책임을 묻기 위한 싸움을 이어갈 것입니다.

정부가 대화를 하자고 하니 일단 대화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빠진 협의체, 일방적인 형식만 남은 협의체라면 언제든 다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무기한 노숙농성투쟁을 결의하고
8월 파업도 예고하고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오후 3시,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한전KPS의 불법파견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사법부의 시계가 빨리 흘렀다면 고 김충현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불법을 바로 잡을 거라고 외칠 겁니다.

서부발전과 한전KPS는 사과문을 냈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시인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사과문을 거부합니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대책위에서는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터와 국회 대통령 실 앞에서 발전소 폐쇄와 안전문제해결을 위한 선전활동과 투쟁도 계속될 것입니다.

전기가 세상을 밝힌 듯, 우리의 투쟁으로 발전소 노동의 현실을 밝히겠습니다.

[입장문]

故 김충현 대책위, 정부협의체 참여와 투쟁으로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오늘 고 김충현 노동자를 보내는 장례를 치르고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실 앞 투쟁을 예고했다.

고인이 일하던 태안화력 발전소 앞에서의 영결식이 시작될 즈음, 정부가 故 김충현 대책위의 요구를 받아 사고 16일 만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책위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지지가 만든 결과다.

대책위는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며 투쟁으로 고 김충현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대책위는 지속적으로 △故 김충현 사망사고 진상규명 △故 김용균 특조위 권고사항 이행점검 △발전소 폐쇄 총고용보장을 대정부 협의체 의제로 요구했다. 이는 발전소 비정규직의 삶과 일터의 과거·현재·미래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금번 발표는 모든 것을 열어놨다고 하지만, '유사사례 재발방지 방안' 중심으로 짜였다. 반면 발전소 폐쇄로 인한 정의로운 전환은 포함되지 않았다.

발전소 폐쇄에 따라 전망을 찾지 못해 기존 노동자들이 빠져나가지만, 회사는 폐쇄를 이유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다. 2인 1조는 커녕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인력조차 없어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책위가 강력히 요구했던 기획재정부 참여가 되지 않았다. 지금 발전소 비정규직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청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기재부가 빠진 협의체는 발전사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다. 지난 서부발전 한전KPS와의 교섭에서 사측은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기재부 승인을 가져오라는 오만방자한 태도다. 그런데 이번 정부 협의체에서 보란 듯이 기재부가 빠졌다. 국민주권 정부의 주인이 기재부는 아니길 바란다.

대책위는 19일 13시, 고 김충현의 동료인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발전 비정규직연대 노동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대정부 교섭과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향후 협의체 구성과 의제 등에 미진함을 보인다면, 전체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앞 노숙농성과 파업 등 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생명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대책위가 지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2025년 6월 18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